

◆ 교회 목표 ◆
신령한 예배
찬구 일문 앙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함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신교회의 사서실 장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9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근

‘예배 지각안하기’ 캠페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해
제1교육위원회 9개 부서에서 실시

이 무리 ‘신령한 예배’를 외친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부터 어기고서야 신령한 예배가 드려질 리는 만무하다. 이에 따라 제1교육위원회에서는 신령한 예배를 깨드리는 주범인 ‘지각’ 현상을 없애고자 영아부로부터 중등부까지 9개 부서에서 일제히 ‘지각안하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천국 문 닫았다 빨리빨리 모이자’를 표어로 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이번 행사는 본래 초등부에서 입안한 것으로, 초등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실천해야 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고자 준비해 왔다. 이 실천 방안들에는 토요일에 일찍 자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혼자서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통편 익히기, 불가불 부모님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을 설득하여 10분 전 도착하기(학생 실천 사항), 지각 사유 파악, 신령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학부모와의 연대(교사 실천 사항), 자녀 신앙 먼저 생각하기, 자녀들에게 자립심 길러 주기(학부모 실천 사항) 등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들의 실천을 위해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들이 연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하였다.

제1교육위원회는 이 계획이 위원의 산하 모든 부서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교육위원회의 차원에서 추진키로 하고 준비해 온 것이다. 이 행사의 당사자인 학생들 및 교사, 학부모들뿐 아니라 총회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예배가 거룩한 기대감과 은총 속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지각안하기’에 적극 참여하며 기도해야 하였다.

대학부 캠퍼스 찬양집회 “주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5부예배 총동원 전도주일 10월 24일 주일

지난 9월 28일 이화여대 광장에서는 우리 교회 대학부와 이화여대 대학생 협동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찬양 집회가 있었다. 약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한 이 집회에서는 대학 캠퍼스의 주일포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고등부와 대학부, 청년1부가 주축이 되어 드리는 5부예배를 위해 10월 24일 총동원 전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부는 10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Vision 7000 복음화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학생 한 사람이 3명 이상의 태신자 갖기, 각 학교 들로소 모임 활성화시키기, 지속적인 전도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기도하기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대학부는 잃은 양 찾기와 캠퍼스 전도를 실시하러 잃은 양 찾기를 위해서는 지체들의 분포를 분석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섬기기 심방하기로 하고, 캠퍼스전도를 위해서는 대학부 모든 회원이 한 명 이상의 전도대상자를 작성하고 인도키로 하였다. 그리고 청년1부는 500명의 출석은 목표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각 회원이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여 인도하기로 하였다.

젊은이는 교회의 미래다. 잠시 후면 교회의 기둥처럼 일하게 될 젊은이들이 계속적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의 역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였다.

태신자 초청 전도집회 10월 16일 6, 17교구

제5차 학습세례식

오늘부터 아래와 같이 학습세례 교육이 시작된다.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지, 집회지	장소	유치세례자	장소
10월 10일 (주말)	1교구 1500-1530	성경학	교구관	세례안	교구관	유치세례자	교구관
	2교구 1600-1630	기독교개론	교구관	(개종지 목사)	교구관	유치세례자	교구관
10월 17일 (주말)	1교구 1500-1530	구원론	교구관	구원론	교구관	유치세례자	교구관
	2교구 1600-1630	문답	교구관	(이종대 목사)	교구관	유치세례자	교구관
10월 24일 (주말)	1교구 1500-1530	문답	교구관	문답	교구관	유치세례자	교구관
	2교구 1600-1630	문답	교구관	문답	교구관	유치세례자	교구관

영교금
성구주
의
운
련

10월 14일(목) — 8교구

10월 15일(금) — 7교구

10월 16일(토) — 17교구

영동포교도소 특별연합 전도집회

교정전도회는 10월 11일(월) 영동포 교도소 강당에서 1교구와 연합하여 특별연합 전도집회를 갖는다. 제소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번 집회의 강사는 이홍성 목사(1교구 지도자)이다.

단기 평신도선교사 후보 선발

당회는 단기평신도선교사 파송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8명의 평신도선교사 후보를 선발했다. 성도들은 이들이 소정의 훈련과정을 잘 마치고 헌지에 파송되어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후원해야 하였다.

단기 평신도선교사 후보자: 오경진, 이수경, 한정영, 권영일, 박수인, 윤 화, 황경식, 이순주

안수집사회 가을 산상기도회

안수집사회는 10월 12일(화) 강원도 삼척에서 가을 산상 수련회를 갖는다. 출발시간은 새벽기도회 후 6시이며 참가대상자는 안수집사 부부, 강사는 김희수 목사이다.

중등부 ‘시찬밤’ 21세기를 예수님과 함께 10월 30일 갈릴리움

중등부 1, 2, 3부는 10월 30일(토) 오후 3시 갈릴리움에서 중등부 연합 연례행사인 ‘시의 찬미의 밤’ 행사를 연다. 금번년의 ‘시찬밤’은 ‘21세기를 예수님과 함께’를 주제로 하여 중등부 학생들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21세기를 예수님과 함께 열도록 신한 꿈을 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며, 특별히 예배와 모든 순서들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전달이 효과적이 되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금번 행사는 중등부 가을 초청전도집회와 연계하여 진행했다.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많은 관심과 기도로 지원하여 금번 ‘시찬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사가 되도록 섬기려 하였다.

이미용전도회 외국인근로자 위한 조발봉사

이미용전도회는 격주마다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 사이에 복지관 2층 이미용실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발봉사를 실시한다. 한편 교회 주변 불우이웃, 교외와 동사무소, 구청에서 추천하는 이웃들을 대상으로도 주중 전도,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56회 동서울노회 10월 11일-12일

제56회 동서울노회가 10월 11일과 12일 우리 교회 본당 및 교육관에서 열린다.



김창인 목사

여호와와 종 메시아의 사명

(이사야 49장 1-7절)

“...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아람의 자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
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1.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1) 여호와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나를 부
르셨고 내가 이미 복중에서 나오므로부
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2절)

한 천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지회
저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
다.

(2) 숨겨진 자입니다

“...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땅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
고”(2절)

메시아에 대한 복음은 여러 시대 동
안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었으며(렘 3:5,
롬 16:25), 의식상의 율법과 구약 모형
들의 그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유년기의 그리스도는 헤롯의 분노로부
터 숨겨졌습니다.

(3) 숨려지입니다

“... 너는 나의 종요요 내 영광을 나타
낼 이스라엘이라”(3절)

이스라엘은 “숨려지”란 뜻입니다. 예
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숨려
하신 분입니다. 이 숨려지 예수님은 하
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4)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신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
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5절)

하나님은 여러 번 예수님을 “나의 사
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
다(마 3:17, 17:5).

2. 메시아의 사명의 범위가 어떠한가

“...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
르게 하리라”(6절)

예수님이 일하시는 범위는 세계 모든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
어났지만 그 한 나라에만 관계를 가
진 분이 아니고 세계 만민이 구주가 되
십니다. 태양은 하나이지만 그 태양의
한국 태양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끌
고루 비추어 주는 것처럼, 영의 태양이
시고 빛은 온원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만
을 위한 구주가 아니고 만민의 구주이
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인간종으로 보
면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성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
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는 얼굴빛이 다르
고 국적이 다른 것이 상관없습니다. 예
수님은 만민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구
원을 얻은 성도의 아버지입니다.

3.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 권세 밑
에서 종살이 하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분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일하실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땅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2절)

메시아 예수님은 일하실 때에 칼을
뿜어서 싸우는 것도 아니라 그 입의 말
씀이 마치 파우에 날선 칼처럼 나타나
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멸하시니다. 예
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신 후
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에 다른 것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부드럽게 말씀 몇 마디로 마귀를 여지
없이 꺾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디
베라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니가 공종요지에서 군대 귀신들이
들려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겁
이 나서 벌벌 떨었다. 사살이 귀신들인
사람 때문에 공종요지 앞으로는 사람들
이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떨
면서 열드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
냐?” “군대 귀신입니다!” “이 사람에게
서 나가라!” 귀신들은 말씀 두 마디로 귀
신을 쫓아 내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말
씀으로 세계를 침관할 것입니다. 그러
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싸우는
방법은 헬기로 하면 안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진리를 들고 진
리를 기약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를 이겨야 한
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1)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시라...”(7절)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시마
귀를 이긴 대승리자 예수님은 모든 사
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나신 것은 베들레헴의 한 약관의 외
양간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시골입니다. 예수님

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엄습억임을 받으셨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여 예수님을 엄습억입
니다. 야만인들은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죄인들은 영의 눈이 어두
워서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예
수님이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모자라서
멸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
이 교만하여 예수님을 멸시하고 인간들
이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인간
들이 죄악으로 영이 어두워져서 예수님
을 멸시합니다.

(2)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7절)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큰 땅과 옛
이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입니다. 이 세 파는 예수님이 자기의 파
가 아니라고 모두 미워합니다. 바리새
인들은 자기네는 경건한 모양은 다 갖
추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경건한 모양이
없다고 비방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
들은 외식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미
워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로
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예
수님은 너무나 깨끗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헤롯당원들은 동
족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로마에 넘
겨 주면서 아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러
서 헤롯당원들의 하는 일을 책망하십니
다. 그러니까 헤롯당원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으
려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없이 미움
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3) 종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7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잡혀서서 그
들에게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으셨습
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찔을 받았고 머
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예수님의 얼
굴을 주먹으로 때려 멍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가죽으로 놀이 달
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
하셨습니다. 로마에서는 자기 나라 사
람이 아무런 중한 죄를 범해도 천을 뺄
거나 십자가에 못박아 사형을 집행했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은 여러 나라
를 정복하여 종으로 잡아온 자들이 자
기네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찔을
받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라
에 반역을 도모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에 처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로마 사람들에게 종의 취급을 받으셨습
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힘
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
셨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여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공언히 헛수고만 한
것같이 보였습니다. “... 내가 헛되이 수
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언히 내 힘을 다
하였다 하였도다...”(4절)

5. 예수님이 죽은 결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시를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종 취급을 받아 죽으
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3일만
에 부활하시고 40일만에 승천하시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피흘리신
결과로 만민이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로
삼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역olum하게 죽으시
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고 만민
이 구원을 얻고 세계 모든 나라의 왕들
이 예수님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합니
다. “...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나서 방
백들이 경배하리니...”(7절)

첫째로, 예수님은 대승리자가 되셨습
니다.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
니다. 둘째로, 성공자가 되셨습니다. 예
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악마의 손에서 빼앗아 하늘나라에 옮겨
놓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회개만하면 누구를
말고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악마의 손에서 빼앗아 하늘나라에 옮겨
놓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셋째로 천하
를 공의롭게 삼관하셨습니다.

6.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만
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복
음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
결해 주셨으며 도리어 인간들에게 미움
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
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만 것이 아니
라 악마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
셨고 만민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멀지 않은 장래에 재림하여 온 우주
를 공의로 삼관하실 것입니다.

궁의 여러분은 예수님을 순종하고 믿
음의 결실을 지킵시다 예수님 앞에
오면서 어찌 절 수 있게 되기를 원합
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
시는 그 날에 흑자 보고서를 내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 선 광 목사

불 평 (민수기 11:1-3)

“백성이 여호와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라 여호와와 불로 그들 중에 불어사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

동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 시내산에서 열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은 율법과 성막에 관한 특별한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중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장막을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사랑 안에서 교통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음식과 물, 온신처와 의복, 그리고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인 구름기둥이 장막을 떠날 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불평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던 구름기둥이 마침내 시내산의 장막을 떠나 이동하자 백성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삼일밖에 지나지 않아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라 여호와와 불로 그들 중에 불어사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민 11:1). 불과 삼일만에 그들의 관심은 하늘의 것에서 땅의 것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여호와와 불이 불평하는 그들 가운데 일한 것입니다. 이 불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축복으로 나타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레 24:10, 12). 그들의 불평의 내용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힘들다며 칭얼대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았던 그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삼일만에 완전히 관점을 바꾸어 땅의 것만을 생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불평소리를 듣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탁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불평

이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한 온갖 압제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님은 그들을 열방 중에서 가장 높은 택함받은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입니다. 그들의 신발은 헤지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과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의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여행은 가장 위대한 곳,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 땅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 보며 소망했을 뿐 소유하지는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제 멀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상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그 땅, 조상들이 꿈꾸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걷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에서는 찬

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의심은 곧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입술은 축복과 저주를 위해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의심과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찬송과 예배, 감사와 영광을 리는 입술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과 같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계속되는 불평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에는 모세가 호바에게 동행했을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에 비해 호바는 땅의 지리를 잘 알았기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 다. 하지만 불과 삼일밖에 지나지 않아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평은 오직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을 멈추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문입니다(민 10:29-32). 2백만에 달하는 백성이 모세를 따라 양식도 없이 평야를 여행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음식도 없이 거칠고 황량하고 무섭기조차 한 평야를 걸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신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불로 보내 이스라엘 진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모세에게로 달려가 구원을 청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민 11:2). 그런데 불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절에서는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이 불평은 계속해서 넘쳐서 술이까지도 고기를 먹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19, 20). 이러한 불평의 분무기는 심지어 모세에게까지 옮겨졌습니다(21, 22절). 이 불평의 사건이 저절로 된 두 장소는 각각 다메라와 기브랏이었다

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의 장소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1-7절에서 발견되는 ‘맛사’입니다. 이곳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불평의 장소들입니다.

불평을 들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의심과 불평에 관한 많은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했고 말라기는 400년 전에 그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만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위대한 자였습니다(마 11:11). 그러나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마 11:3).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부터 온을 내려 져는 재물을 대우하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불평했습니다(왕상 19:4).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찬송만을 들으실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을 멈추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반면 믿음을 잃으면 즉 시 의심과 불평이 자라잡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위대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따라서 그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인도 따라가야 합니다(마 16:24). 성경의 진노와 지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불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

10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열매로 거두어야 하겠습니까? 불평과 의심의 열매를 거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과 성령과 말씀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약속의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걷는 것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신실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된 길 위에서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전능자를 예배하고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그에게 나아갑니다. 아멘. ■

세계 선교

방글라데시입니다

예수가 선교사의 과감한 시도

김은 미(방글라데시 단기 평신도선교사)

안녕하세요? 김은미입니다. 얼마 전 일주일에 한번씩 저를 위해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더군요. 사실 매일같이 신적한 이곳의 문제들에 처하여 한국을 생각하거나 그리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외롭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러나 제게 있어 여러분의 존재인 제 내면에 은밀한 자신감과도 당당합니다. 언제든 돌아갈까 맞닥뜨릴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욱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 한 끼를 금식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 온통 굶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벼들을 깨거나 막도동을 하며 고동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들, 그나마 그들은 굶주림은 면하겠지만 곳곳에 공터마다 아무 할 일도, 먹을 것도 없이 그늘 하얗게 누워 있는 사람들, 죽은 듯 누워 있는 엄마와 아들을 데리고 청일대는 아기들을 볼 때면 저의 삶이 너무도 부끄러워집니다.

이제는 별가야도 조금 할 수 있고 길도 많이 익혀서 행동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곳 한민을 중보는 다 키 사를 무슨 지옥의 한 천으로, 력사(인력 자전가) 타는 것을 자살 행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혼자 여기저기 다니는 것에 걱정과 소리가 있습니다. 한 기 넘치는 1년짜리 단기 선교사와, 평생을 헌신했기에 조금씩씩게 헌신하여는 하는 선교사님들을 포함한 이민자들 사이 의 갈등은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확신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한인 사회의 품이 제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의 갈등과 이해 관계에 휘말려 아무 결단도 나지 않을 육의 싸움을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유학생도 이민자도 아닌 저의 본분을 깨닫고 내기 받을 고난은 오직 복음을 위해 죽는 것뿐임을 기억합니다.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 자 손님과 의를 위하여 울었던가! 또 복음과 관계없는 일에 내 내마음을 쏟았는가?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 그러므로 내 영혼에 참된 공명이 없는 곳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감히 나의 거처와 교회를 헌

지인들 속으로

울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안전과 재정,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게다가 현재로서는 이곳을 벗어날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안의 두려움입니다. 가끔은 내가 속한 곳에서 만일밖에 빠져 이렇게 좋은 거처와 사역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고생과 위험을 감수하겠는지 스스로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께서, 비록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해 길이 훈련된 자들을 보내시고, 그 동안에 일반적이고 내 만족적인 기도의 수준과 신앙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좀더 능력있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또한 명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 탓으로 돌리고 주지않을 문제들도 하나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람들의 말에 신경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한 말을 계속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들을 뒤져보아도 그들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개없이 일하셨습니다.

헌신성이 강한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좁아질 수 있겠지, 비교적 넓은 세상에서 금방 은 애송이 선교사는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이 과연 존재할까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여 분노하고 내 원수를 치질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 우리는 누구누구 할지없이 그저 안타까운 최인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엄청난 오류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를 끌어 주는 공동체, 교회, 가족, 친구로 인해 이기적이고 편협해 질 수 있고, 나를 감당해 주는 사람들, 언제든 내 힘든 것들과도 전적 일 용호와 위로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평민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참된 진리와 공의와 평안과 치료, 이 모든 것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교만함을 내어놓고 온전히 자신을 의뢰하는 자로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스리랑카 단기선교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난 6일(수) 스리랑카를 향해 떠난 단기선교단이 무사히 현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위원회 지도인 이승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국외국인선교부에 서 스리랑카팀을 이끌고 있는 오매규 전도사, 지난 여름 스리랑카에 한 달간 체류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오경희, 추진의 자매가 한 팀이 되어 마음속 단기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단기선교단은 현재 우리 교회 국내외국인선교부에 출석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가정과 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근로자들의 가정들 심방합니다. 이곳저곳으로 출몰하여는 이들을 일일이 찾아 가리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주신 땅 스리랑카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오경희, 추진희 자매가 머물렀던 집을 다시 방문하여 고등학생 한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낮선 나라를 통해 전해 들었을 예수 그리스도, 그 동안 한시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내년 1월이면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한시는 물론 그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예정입니다. 같은 또래라 벗끼만 눈높이로 전해줄 예수 그리스도, 한시는 물론 친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단기선교를 통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저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웃 사랑

먹은 샘치고 얻은 샘치고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한다. 돈이 없어 생計 해야 할 것을 못하는 이웃들의 쓰라림을 헤아리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다. 그러나 내 주머니도 그럭저럭 넉넉하여 뭇돈을 때내지 못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샘치고 주머니"라는 이름의 주머니를 만들어 눈에 보이는 데 걸여둔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소비생활에서 나의 욕심을 덜어내는 훈련을 한다. 이를테면 비싼 점심을 먹고 샘치고 한 톨, 좋은 옷 입을 샘치고 두 톨, 택시를 탄 샘치고 세 톨, 커피 마신 샘치고 네 톨... "샘치고 주머니"에 술을 돈이 모인다. 그 돈으로 이웃의 눈물을 씻어 줄 수 있다면 상처를 입우만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샘치고 주머니"를 가지면 욕심은 줄고 돈은 불어나고 믿음은 자란다.

편지쓰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 이리저리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는 일은 생각하면 한수룩 호호한 일이다. 때로는 눈빛으로 때로는 말을 통하여 마음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신비한 설리에 대해 감탄한다. 그러나 눈

생활 속에서 사랑 나누기

빛이나 말이 너무나 순간적이어서 늘 아쉽고 같을 이 난다만, 여러분들이여 이 가을에는 편지쓰기를 권하고 싶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사람의 편지를 받고 열 번이나 백 번쯤 그 편지를 읽으며 행복했던 기억을 보충처럼 간직하고 있지 않은가!

편지쓰기에는 받은 사람과 쓰는 사람이 동시에 맞아야 되는 은밀한 기쁨이 있다. 편지를 쓰는 그대여! 마음을 송두리째 쏟아 붓는 사랑의 편지를 쓰는 도중에 문득 상대방을 위해 하염 없이 기도하게 되는 각별한 경험을 맛보아라. 그러다가 때로는 내 편지를 받은 그대를 위해 순결한 눈물로 흘려보아라.

편지를 받는 그대여! 만약 그대가 고독과 폐쇄감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다면 이 한 장의 편지를 받고 용감하게 그곳을 벗어나라. 만약 그대가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받고 한껏 마음이 설레어 본적이 있다면 그 소중한 기억들로 인하여 인생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느끼어 붙어다.

비밀

호흡이 왔다. 누굴까?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신배 언니의 찬양소리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이라" 언니의 목소리로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 주었다. 그리고 최근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후회하지 말라

며칠째 직장에서 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 마음이 괴로웠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다. 생각지도 못했던 충돌이 생겼고 눈물을 흘리며 옆 동료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했다. 담당자도 그만 두고 싶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내 사물함을 여는 순간 섰노란 후회지가 한 단이 나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다. 어느새 내 마음도 완쾌했다.

채소장사

그분은 시장 한 귀퉁이에서 채소 장사를 하신다. 평, 열간이 등등 각종 채소를 하루종일 열심히 팔며 생활하신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채소 장수, 그러나 그분은 팔고 남은 채소를 고아원이나 주위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에게 주신다. (6번으로 이어집니다.)

인터넷 선교의 첫발 디딘 고등부 컴퓨터선교부 기독교문화 재창조의 산실 되길

김 언 정(고등부 교사, 컴퓨터선교부 지도)

컴퓨터선교부는 고등부에 관한 각종 문헌과 자료의 보관 및 관리뿐만 아니라 컴퓨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사명을 띤 중요한 부서이다.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문화나 대중매체에는 세속적이거나 영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요소들이 많음을 간파할 수 없다. 이 위험한 영향력들로부터 청소년들은 전혀 정서적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며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컴퓨터 게임, 전자오락, 인터넷의 음란사이트, 우상숭배는 스타 열풍 등이 그렇다. 인식정경과 실업문제, 가계문제, 환경문제, 사회적 비리와 혼란 속에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퇴색되어 가고 날이 갈수록 청소년범죄는 늘어난다고 더 포악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혼란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고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길은 윤리도, 도덕도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복음을 십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들과 가까워야 한다. 그들의 필요와 관심이 모아져야 하고 먼저 그리스도도를 따르는 교사와 학생들이 사랑과 모범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10대들의 관심과 주의를 그리스도에 게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성령의 도우로 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 컴퓨터선교부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고등부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변화와 기대를 시도하고 있다. 충청교회의 고등부를 소개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 나누기를 올리고 마음껏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며 나누는 '대화의



장'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실이 되며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수많은 10대들이 참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문화를 재창조하는 역사가 우리 부서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고등부 홈페이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젊은이' 위하여 바른 통신 문화의 지향점 제시

박 철 충(고등부 교사)

컴퓨터선교부는 99년에 새로 구성된 학생회 부서가 지난 어느 부서 못지 않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고등부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를 통해 대내외교상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구 일곱을 볼 수 없는 고등부 지체들끼리의 소식을 전하며, 고등부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 터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고등부의 홈페이지입니다. 고등부는 작년부터 인터넷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홈페이지를 인터넷상에 개시하고 고등부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후 컴퓨터선교부가 생기면서 세 번째 걸친 업그레이드 작업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5000여명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세 번째 틀의 완성을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에 하소.

고등부 홈페이지의 구성은 크게 1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등부의 전반적인 소개인 고등부 안내 / 꿈이 있는 교사회 소개 / 학생회에 관한 소개 / 학교전도부인 들로소 소개 / 고등부의 주요 겸 주관인 '소금'에 빛으로'의 주요 내용 / 고등부의 모습을 담은 앨범 / 유익한 추천 사이트 모음 / 지도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 내용을 볼 수 있는 말씀과 묵상 / 신앙이나 성경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Q & A / 지체들의 소식을 주고 받는 자유 게시판 / 특별한 주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토론장 /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대화장 / 필요없는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자료실 / 대교 회나 새로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들을 위한 방문록입니다.

99년 고등부의 표어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젊은이'입니다. 컴퓨터선교부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지 주를 꿇지 않는 젊은이를 통해 항상 바른 통신 문화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복음이 부족한 인터넷에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꾸준히 기르고 가꾸는 일을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고등부를 뒤편다 다시 돌아오는 지체들이나, 새로 등록하는 지체를 가운데 교회에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고등부를 접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지회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 것인지를 느낍니다. 이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직접 방문해서 많은 조언의 말씀들을 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등부 홈페이지 주소 <http://galaxy.chanmi.net/koionia> 혹은 <http://choonhyun.net>

한 영혼을 떠나보내며 ...

지 상 훈(대학부 2학년)

"제가 7층 갈게요." 원래 나는 항상 8층에서 전도를 한다. 하지만 그날은 7층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7층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침대에 누워 있는 그를 처음 봤다. 나는 그냥 내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많은 사랑을 나누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속으로 생각했다. '잘하면 믿을 수 있겠다.' 그에게 예수님 꼭 믿어라라고 말하고선 그 병실을 나갔다. 그리고 다음 병실로 갔는데, 그는 나를 만나기 바로 전에 만나 보였던 아주머니 한 분이 그에게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왜 이번엔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기도가 부탁을 하는지 궁금했다. 그 분이 나에게 모든 얘기를 했을 때, 난 마음 가운데 어떤 알지 못할 무덤감이 들기 시작했다. 이유unknown. 그는 '암'에 걸려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그를 믿게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그를 만난 지 1주일이 지난 후 그를 찾아갔다. 안 개했다. 종환자처럼 옮겨간 것이다. 그의 아버지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군대에서 제대를 40일 앞두고, 소식을 들었던다. 평소와 같았지만 하던 하나뿐인 아들이 제대를 앞두고 2달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 머리 속 어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가슴이 미어

져왔다. 얘기를 마친 후, 병실로 들어가 있는 아버지를 붙잡고 '사영리'를 건네주었다. 꼭 읽어보시고 아들한테도 읽어 주시도록 권했다. 그게 마지막 뒷모습이 될 줄이야.

바로 지면 주에 찾아갔었다. 6층 중환자실로 갔는데도 그 이름이 없어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추석 전에 돌아가셨단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아버지에게 사영리를 건네준 날 저녁이었다. 가만히 병원 계단에 기댄 눈을 감았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냥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영리'를 읽어 주었을까? 혹시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 것 같다.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생각을. 결국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다. 그냥 너무도 그냥 주님께선 알아서 하시리라 무작정 기다리던 안절이 되었다. 정말로 죽어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록 부목자였던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단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이다. 세를 뿌렸을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기보다는 기쁨으로 단을 거름 그날을 기대한다.

소중한 기다림

최 준 호(대학부 5학년)

성경에서는 수많은 기다림으로 인생을 보낸 자들이 많다. 특히 아브라함이 그렇다. 그의 기다림은 참으로 오랜, 그리고 고대하던 기다림이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만족함을 얻으려 한 연약한 모습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25년 동안의 시간을 놓고 기다리게 하셨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가 발견한 사실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주시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늘의 별들을 보았고 바다의 모래를 보았을 것이다. 그가 이 루시는 그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을 새워보았을까?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연단을 주셨다. 사울로부터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고, 자기자 죽인 욕심의 나라에서는 미친 척하되 기다렸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다렸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에서 그의 인생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참아간 것을, 그리고 그가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속 그의 신앙은, 그의 인생은,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무리 인간의 기다림이 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다림에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태초 전부터였다.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은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흘러다녔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항상 기다림은 끊임없고, 변함없는 그런 기다림이다. 우리가 마라는 것, 즉 우리의 기대할 이 못 있을 때에 순리들과는 다른 신나준 변화는 우리들과는 다른 하나님 이시다.

그 말씀과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았으니.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 기다림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신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의 음성과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나 우리들을 기다리신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대들 ...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요, 신앙은 기다림이 내내하는 것이다.



내가 만난 예수님 어느 청년의 이야기

이 동 준(청년부 교사)

지난 1985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연립주택에 당시 우리 교회 북목사로 계신던 목사님들께서 여러 분 살고 계셨습니다.

그해 2월에 연립주택 B동 204호에 지방에서 한 가족이 이사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열점 203호에 사시던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이때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셨습다.

3년의 시간이 지난 1988년 2월 28일 주일에 그 가족 중 한 사람이 그 사모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난생 처음으로 나온 그 청년을 위해 사모님은 6개월 동안 함께 주일 3부예배를 드렸고 새가족 부를 수료하고 청년1부로 가기까지 바로 열자리에서 함께 새신자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후 그 청년은 청년1부에서 믿음의 기초를 배우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까지 이들의 교회 출석을 반대하시던 가족들 중 청년의 어머니가 지난 1994년에 출원교회에 출석하여 지금은 장년1부에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며 청년의 동생 또한 1998년 가을 교회에서 결혼예식을 거행하고 일터 전에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상 지난 10여년간의 저의 삶을 돌아켜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저를 기르시고 이제는 청년1부의 교사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섬리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느 사모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쉬지 않는 기도,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주님께 감사하며 영감을 돌립니다.

실적일기

안분지족의 지체 깨달은 6개월

강 병 권(청년부 72등)

98년 6월을 마지막으로 나는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1년이 동안의 직장생활은 이만한 권태로 날 힘들게 했고 내가 이 정도 일 할 인물은 아닐까라는 나름대로의 자괴기 하들을 겪고 있을 때였다. 사장님의 간절한 민원과 IMF이기 때문에 정기가 돌릴 때까지 참으라는 부모님의 격려 반대로도 불구하고 미련없이 뛰쳐나왔다(참고로 내가 했던 일은 강남 일대 사무실을 상대로 커리나 국산차, 음료를 배달 사무용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였다).

그리고 7월 중순 해남 전도사역 준비에 들어갔다. 여러 형제들과 모여 가면급 연습을 하고 배정그림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운동원습도 하고 축조준도 방법도 맞추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지금 생각 하면 해남에서의 사역보다 피곤한 줄 모르고 연습하고 준비할 때의 아가자기함이 더 기억이 난다. 8월에 들어서니 이번에는 춘천 동면 사역이 날 기쁘고 있었다. 직장을 그만둔 뒤였고, 소수 정예가 아닌 사오십명이 가는 마치 여름성경학교 같은 기분이 들었기에 부담없이 따라갔다.

8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백사의 나날이 시작되었다. 우선 좋은 큰 내수 좋아하는 잠을 설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것도 하루 이틀이지 수시로 지나가 나중에는 미칠 지경이었다. 오전 10시나 11시에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출근하기 시작했다. 이 력서, 자기소개서 등 나의 프로필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고 막상 기업체에 서류를 내리니 모두가 한결같이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배려할 경력이란을 뽑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특별한 능력이 거의 전무한 나는 주로 발로 뛰는 영업직을 많이 노크했다. 대회사실 전광판의 외상과 살려보려는 의도로 중견 기업체에 찾아가는데 있는 사람도 쫓겨나는 판에 나 같은 신출내기엔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일임지하여 거절당했다. 몇몇 업체에 이력서 내고 기다렸다. 그러나 일자리를 준다는 연락은 오지도 않았

다. 참 많은 곳을 돌아다닌 건로 기억한다. 대기업 취업보도실, 서울 외곽 변두리, 남시터, 도서관 등 화려한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갔다.

9월을 그렇게 보내고 10월에는 나의 적성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서 서울 인력은행을 찾았다. 구직등록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담당관은 전에 했던 일이 나의 적성에 꼭 맞은 일이었다는 데 그 그만두었구나 어이없게 했다. 그렇다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엔 한 번 나온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거의 매일 새벽 나 온 업체를 검색하려고 방문하던 중 우연히 택배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며 소개를 받았다. 이 일을 한 번 해보고 싶었고 3개월 가량의 구직활동으로 나름대로 지쳐 있었기에 꽤히 속낙을 했다. 찬 바람이 매스게 몰아치는 11월부터 시작한 그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건 그리 지력 하였는데 큰 빌딩 위주로 남동쪽엔 나에게 가가호호 집 번지를 찾아 배부하는 건 상당한 스트레스였다. 생활을 잃고 얼굴은 까칠까칠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뻥했다. 하지만 힘들게 구한 직장이었기에 꼭 참고 일했다. 일이 늦게 끝나자마자 담이 꼭 요일 성격장동으로 헬레벌릭 들어가 꾸꾸꾸빠 출근한 일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크큰 큰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만 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었다. 도저히 힘이 힘들어 못할 것 같아 직장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다시 받아 줄 수 없었는 나의 부탁에 사장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었다. 난 지금 이 일을 천직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는 것 같다.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으며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나 안분지족(安分知足)하게 되고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되었다.

주자장에서 들은 이야기들 어느 단골 주자 집사님

박 찬 섭(집사, 12교구, 봉사자 차량부)

주자 안내를 하는 차량부 봉사자들에게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주위나 더위, 눈이나 비,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매연도 감수하며 봉사한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으면 무척 조급하고 날카로워진다는데 여기에는 성도나 비성도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마주쳐서 봉사하게 된다. 그래서 가끔은 우울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자 안내 유도를 잘 따라 주셔서 주차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 우리 차량부원들을 기쁘게 한다.

특히 불편한 자리로 안내하려면 끼이는 것처럼 미안한데 웃으면서 끌라지 따라 주신다. 또 제2교육관은 중측 줄이나 승강기를 작동할 수 없어 지하 4층까지 내려 오시는 분들은 좀 짜증스런 마음이 생기기 쉬우면서 막수해 주시거나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신다. 자신은 일찍 오셨기 때문에 주차하기 쉽고 나가기 편한 곳에 주차하고 싶으실텐데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하여 일루루 안내를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박수를 보내고 싶다.

본당 앞마당엔 장애인과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을 우선순위로 안내한다. 그런데 70세가 넘으신 경기도 사시는 P집사님은 본당 앞으로 주차를 하셔도 뒤편에 한결같이 제2교육관 4층까지 내려 오셔서 주차하시고 3부예배 이후에 가족들을 위하여 지상으로 차를 옮겨 놓으신다. 참 감사하고 존경스럽다.

올해 우리 차량부의 중점 안내 사항은 자동차 앞면이 건물 벽면을 향하여 주차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기가스로 인하여 생긴 백연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화단의 나무들의 성장을 위해서이다. 무뎠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이에 유념하여 주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령 속에서 사랑 배움기

사랑 우유 나누기

조지 풀러가 어느날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빵과 우유가 없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빵사에서 팔고 남은 빵들과 우유공장에서 남은 우유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먹게 하셨다. 그런데 요즘에도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방법의 통로로 사용되자고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 제빵점 한두 곳을 다니며 팔고 남은 빵을 얻어 고아원이나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고, 내 시간과 몸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이런 종류의 사랑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이 사랑의 행위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로 인해 사랑받는 이들의 마음에는 기쁜 소식이 실길 것이다.

자동차 앞에 타기

쉬운 것 같으나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나 쉽다. 시간이 날 때, 급하지 않을 때, 마음이 울적하지 않을 때, 차에 짐이 없을 때, 차가 깨끗할 때, 그런 때가 오면 나도 다른 사람들 태우고 교회에 가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동차 함께 타기는 요원할 뿐이다. 일단 결심하고, 누군가에게 겸손히 제안해야 한다.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 차 타고 함께 교회에 갑시다." 그렇게 되면, 차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표정을 의문 없이 보게 되고 성도는 성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열날 것이다.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이들이 많다.

지혜소식

영아부

영아육이 살피는 10월

영아부에서는 사람이 가득한 10월에 새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 또는 우리 이웃에 있는 영아(0세부터 만 2세까지)들을 전도하여 찬양과 율동으로, 기도, 말씀으로 영아 육이 통통하게 살피는 10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에는 17일에 반별 찬송부르기교 하나님께 우리의 달이기에 일찍 마음을 쓰고, 31일에는 새친구 초청잔치를 개최하여 새친구를 전도하고 예수님이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이 장기 결실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전화를 찾아가는 간절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임아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로, 선교관 103호로! 주일 아침 9시와 11시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새 친구 초청 잔치

유아부는 10월 24일 '새 친구 초청 잔치'를 가지려 합니다. 신생아들은 새 친구와 장기 결실 친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찬화하고 예배 후 본당 앞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실이 새 친구들을 가득 차기를 바라며 어머니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 결실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이 4부예배를 드리느라 못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머니들, 협조해주신다면 우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 조금만 힘내주세요. 유아부는 1만(9시), 2부(11시) 두 번 예배를 드립니다. (임미숙 통신원)

유년부

우리는 전도특공대

금년초부터 매주 과별로 가졌던 교사 기도모임이 9월 초부터는 '효과적인 어린이전도'를 위한 전도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하여 훈련받는 것이죠. 전도사님의 시범과 설명을 들은 후 짝을 이뤄 실습을 해보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웃음 먼저 나오던 교사들도 이제는 제법 느긋한 전도특공대가 되었습니다. 31일 새 친구 초청 잔치를 앞두고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이면 조를 짜서 학동·논현초등학교로 어린이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특공대 준비 완료! 이제 전하러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문옥희 통신원)

초등부

배운 말마다 초목상한 학습평가

지난 주일에서 초등학교에서는 3학기 학습 평가가 있었다. 3개월 동안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였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그래도 시험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평가를 인했다. 우리 친구들이 남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한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1부

학부모 초청 예배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학부모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우리 친구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소: 중등1부 예배실(교육관 414호)

일시: 1999년 10월 17일(화요일)

순서: 9:00 - 9:40: 중등1부 예배

9:40 - 9:50: 무장 담배와 권면

9:50 - 10:00: 지도 구역자 기도회 인도

10:00 - 10:30: 담임교사와의 대화

학부모님들 꼭 참석하셔서 격려와 조언의 말씀도 주시고 이 계절만큼이나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통신원)

고등부

VISION-7000 복음화 운동

뜨거운 기도와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고등부에서 학생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청합니다. 고등부 측

제인 코이노니아 밤 행사(10월 23일 오후 3시)와 새로운 친구 환영식(10월 24일 오후 1시 30분)이 강렬리홀에서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경재 통신원)

청년2부

회장단 전신

회원들의 기도와 협조를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1일 회장단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회장단 입후보자들이 등록을 마감하교를 2000년대 청년2부를 설치 회장단 선거를 위한 준비들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으며, 청년2부는 온통 '누가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은 남·여 부회장 후보 소개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며 10월 24일에는 회장 후보 소개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회장단 각 입후보자들의 프로필은 오늘 청년2부 집회식 앞에 게시할 예정이다. 기존 회원들과 그동안 잊지 못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10월 17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청년2부 회원들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전도의 열매를 맺히드리기 위해 1명씩의 태신자를 정하여 기도하고 있다. (백경자 통신원)

사랑부

전하보다 귀한 영혼

충현북지침 및 일반 성도 자녀 중 장애인에 대상으로 9월 29일에 장애인 초청 전도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학생은 약 100여명 정도 되었다. 학생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와 수고로 미리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나온 학생 중에 이번 주에 꼭 회교에 나온다고 약속한 학생이 있었다. 부른 가슴을 안고 신입생 소개 시간을 기다렸다. 1부 예배시간이 끝나고 디어 신입생 소개 시간. 그런데 앞으로 나온 학생이 너무 적었다. 실망감이 물들듯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한 번도 만난 수 있었으니 말이다. 이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전하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했다. (정재희 통신원)

2교구

새가족의 건강할 태신, 양육을 위하여

2교구에서는 태신자 310명을 일대하하여 이들을 건강하게 출산, 양육하기 위해 모든 교구식구들이 매일 30분씩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갑한 심정으로 태신자들의 영양 공급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새벽마다 교육관 109호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월례히 금식기도와 아울러 편지 보내기, 전화하기, 어려운 일 도와 주고, 사랑의 선물 보내기, 교회 소개 등 전심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력 집회에는 구경꾼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었습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만나홀에서 태신자 총력 전도 집회를 갖기로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혜 통신원)

7교구

홀려진 하나님 자녀를 찾아 나서

9-11월 교구 총동원 전도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새벽기도회 후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6차에 걸친 노방전도 및 축조전도, 병원전도 등 9월 21일부터 실시한다. 모든 교구식구들이 함께 모여 8명 팀로 나뉘어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홀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정해진 장소로 나가는 모습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려 달려나가고자 한다. 결코 하나님의 행사가 되지 않을 바라며 7교구에 속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에 빠져 제게는 이들을 먼저 내어 살리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한다. (7교구 통신원)

12교구

눈물의 기도 열매들 환영식

나·를·바·꾼·한·마·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32절)

장 기범 (법사, 1교구, 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

양천으로부터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길을 강조 받은 덕인자, 아니면 타고난 성품 때문인지 나의 이리산결과 청년시절은 늘 완벽함을 위한 몸부림의 연속이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좀더 공부하고, 좀더 열심히 살라는 그런 몸부림의 연속이었다. 그러한 성품덕인지, 몸부림은 지금에 비해 거의 10kg이나 적었고 매사에 불한 마음과 날카로운 신경의 끈두박과 긴장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하고 삼자재가 윤기는 없었지만 항상 성취하는 형으로의 형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이었다.

뜻밖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아래서 교육 봉사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내 삶에 큰 변혁을 준 계기가 있었다. 파인힐이라는 곳으로 찬양대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다. 그 곳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니 전날 밤 촛불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날 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최고의 인본이며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를 하며 살아온 정신과 의사였던 찬양대장 집사님이 온전히 성령님 주위를 돌았다. 그의 일에서 불꽃처럼 초지근한 고백은 나의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조망하는 성령님의 계시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내 머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 "기쁨이 내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내게 보아도 신기할 만큼 바뀌었다. 삶의 주동권을 내가 꼭 움켜쥐고 마땅 거러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의탁하고 말씀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만일 옛날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아등바등거리며 살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오일의 나쁘다. 절대로 나은 것이 없는 내가 되었을 것이며, 둘째로는 오늘날의 나는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내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교구에서는 지난 주 태신자 환영회가 있었다. 살롬성 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에 이어 선물을 드리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환영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특히 한 성도님은 부인되시는 집사님의 오랜 눈물의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석하셨다. 온 교구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다. (이규숙 통신원)

14교구

육신의 질고 중에서도 전하는 기쁨 우리는 집사님

얼마 전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교구의 박옥신 집사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그 집사님은 지금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건강할 때 전도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러한 병에 걸렸어도 병원에서 먼저 않는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신다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 어딘가는 팔세적인 제단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불타고 주님을 믿으라는 경고처럼 늦게는 이제, 때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의 가장 가치있고 보람된 일이 있다면 바로 전도의 것이다. 각 교구별로 태신자 전도잔치를 준비 중인데 정말 모두가 동참하여 아름다운 결실들이 꼭 있어야겠다. (이애나 통신원)

